

圓弧를 그리며 양 옆으로 펼쳐졌는데 衣端은 直線으로 잘려졌고 그 밑에 單葉의 伏蓮座를 새겨 놓았다. 手印은 右手를 臍前에 들고 左手는 胸前으로 올린 듯하다. 光背는 頭光만을 表示하였는데 二重圓光으로 頭部周圍이나 圓光周緣 或은 內·外光 間地 等 各部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다. 豐滿한 相好나 堂堂한 肩部 等의 彫刻手法로 보아 新羅代의 佛像樣式을 잘 踏襲한 高麗中期以前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實測值(cm)는

總高 五五〇 頭光內徑 一七〇 肩幅 一三〇
頭光外徑 二七〇 胸幅 七五이다.

傳聞한 바에 依하면 北麓平坦地域이 寺址라는 바 日帝時 銅鐘이 出土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近處에서 靑瓷片이나 瓦片을 多數蒐集할 수 있다. 佛像의 바로 밑 南쪽 山中腹에 約五十坪의 臺地가 마련되고 自然礫石이 묻혀 있는 點으로 보아 庵子址로 생각된다. 여기서 西南쪽을 내려다보면 南漢江이 구비쳐 흐르고 驪州行路邊 部落이 眼下에 展開되며 婆娑城이 南쪽에 바라 보이는 佳景임을 느낄 수 있다. 楊平에서 一〇km 卽 卽便으로 介軍에서 下車하여 徒步로 約一時間, 一日 踏查코—쓰로 卽 좋은 곳이라 하겠다.

(註) 大正五年度古蹟調查報告書 驪州郡章에 婆娑城의 調査內容이 있고, 또 朝鮮 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도 五四頁 驪州郡項에 記錄이 보이니 바로 隣接한 이 佛像에 對하여는 全히 紹介가 없다.

이 곳은 本時 驪州郡管轄이었으나 近年行政區域改編으로 楊州郡이 되었다.

全羅北道 海岸一帶의 先史遺蹟 (二)

崔 夢 龍

(b) 山內面 大項里 조개미貝塚

이 貝塚은 邊山半島 北半部에 位置하고 있는 山內面 大項里 蛤九味(地方名)로는 조개미)에 所在하고 있으며 標高一二四四m인 石門을 背景으로 하고 西海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幅約一五m程度되는 조그만 浦口

와 併行하여 있는 朴長春氏 所有 보리밭의 東側이 一〇餘m쯤 干潮에의 해 流失되어 自然露出되어 있다(圖1 및 寫眞 參照). 現在 이 貝塚의 範圍는 南北約一四m, 東西의 幅은 約一〇m쯤 되며, 地表에 露出되어 있는 岩盤의 上部까지는 一·二七m이며 貝殼層은 五三cm—六五cm나 되는 비교적 規模가 큰 貝塚이라고 쉽게 斟酌할 수 있는 것이다(圖2 參照).

이번 調査時 岩斷崖部의 崩壞를 憂慮한 나머지 試掘坑도 掘어 보지 못하였지만 僅는 腐蝕表土層 밑에 보인 純貝殼層에서 表面採集한 打製石器 五點, 櫛文土器系統의 土器片 二點과 三國時代로 推定되는 陶器片 二點이 이 遺蹟에서 發見할 수 있었던 遺物全部였다.

(A) 櫛文土器

櫛文土器系統의 土器片은 口緣部와 胴部 二點뿐이며 前記 두點 모두 異質의 破片이다.

두點 모두 胎土는 결이 고운 砂質 흙으로 되어 있으며 雲母가 비교적 많이 含有되어 西海岸地區의 典型的인 櫛文土器의 胎土와 相通하고 있다.

口緣部片은 內外壁 모두 明褐色의 色調를 띄우고 있으며 器壁의 두께는 〇·八cm이다.

또한 器壁의 두께가 〇·八cm인 胴部片의 外壁은 不完全한 燃燒로 因해 黑色을 띄우고 있는 反面에 內部는 비교적 밝은 明褐色의 色調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 두片의 土器片이 櫛文土器系統이나 또 無文土器系統인가 하는 問題는 將次的 發掘을 통해서만 決定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며 現在로선 確하고 斷定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 胎土의 質이 櫛文土器式이며 口緣部의 모습이 平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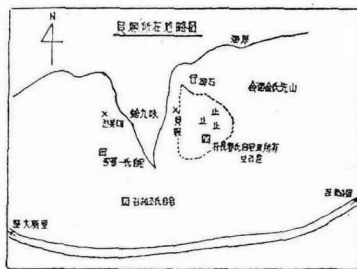


圖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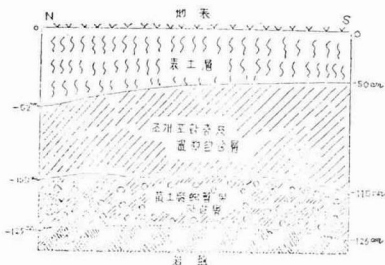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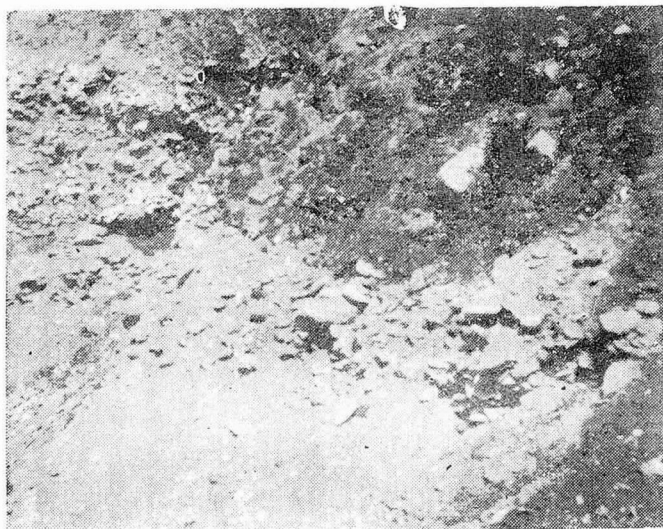


圖2 斷面圖

龍岡 燕鳥里出土의 櫛文土器片과 ① 비슷하다는 것만을 들어 둔다.

(B) 打製石器

五點의 石器는 모두 斑岩製品이나, 風化나 侵蝕의 程度差에 따라 灰色과 棕色을 띄우는 것 두가지로 區別된다. 仔細한 說明은 여기서 避하겠으나 이 石器들은 礫石에 橫位打撃을 加해 만들어진 大形剝片을 利用한 石斧形 刀器들이며 西海岸에 隨伴하는 礫石器의 系統이라고 할 수 있다.

② (C) 其他 遺物

三國時代로 推定되는 陶器片 二點은 그것이 이 貝塚年代의 下限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單純한 後世의 流入物인지를 豫備調査만으로도 가려낼 수 없다. 以上 上記 遺物들은 이 貝塚의 性格을 究明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不充分한 것이지만 土器의 胎土와 石器의 性格으로 보아 基本的으로

櫛文土器系統의 文化를 表示하는 貝塚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確實한 것은 後日의 發掘調査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註

- ① 有光教「朝鮮櫛目文樣土器의 研究」(京都大學 文學部 考古學叢書 第3册, 京都, 一九六二) 圖版Ⅸ의 2 參照
- ② 笠原烏丸「櫛目文土器을 發見せる 北鮮清湖里遺蹟に就いて」(人類學雜誌 五一卷六號 一九三七年 五月) P. 二五七 및 金元龍「岩寺里 遺蹟의 土器·石器」(歷史學報 第一七·一八合輯 一九六二年 六月) P. 三三三

資料

水原城廓城門의 金石文

申 榮 勳

水原城廓의 各城門 武砂石에 造營監督한 從事員들의 姓名이 銘記되어 있다.

南門(八達門)에는『監董前牧使金樂淳』前府使李邦運』牌將嘉善李道文』韓尙禮』林俊昌』前五衛將申曠』石手嘉善金尙得』等八十五名』

東門에는『監董前營將金箕昇』監董前府使金懋』牌將嘉善李弼載』折衝洪覆譽』石手金明漢』等六十九名』

西門에는『監董前府使金處漢』牌將僉使金泰瑞』閑良尹鎮默』石手朴尙吉』等六十八名』

內容은 監督以下 都石手에 이르는 責任者의 職銜과 姓名을 記錄하여 工事의 責任과 그 功績을 남기려 한 것이다.

城廓의 城門 城壁에 施工者의 責任을 묻기 위하여 혹은 記錄하기 위하여 刻名한 例는 서울城廓을 비롯하여 많이 있고 羅代에서도 南山新城 碑 등에 그 遺例를 남기고 있다.

南門의 石手 金尙得은 六百四十五日間 城廓築造工事に 參與하여 八達